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2/30℃ 목포 19/25℃ 여수 20/25℃

단기 4343년 (음력 5월 1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09호 1판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이젠 승부차기도 중요

24일 새벽(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대표팀 회복훈련에서 차두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18·19면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시속 400km로

차세대 차량 투입…2015년 상용화 가능

호남고속철도에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남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에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350km인 호남고속철도의 설계속도를 시속 400km급 기반시설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3년까지 974억원을 들여 시속 400km 수준의 철도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속철도 차량 개발에만 국한돼 실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시속 400km로 운행할 수 있는 철도노선 등이 확보되지 않아 시험운행이나 상용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도 국토해양부가 시속 400km급 차세대고속철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반이나 전차선 등 기반시설 연구를 배제한 채 고속철도 차량만 개발했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을 과제에 포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의 일부 직선구간(118km)의 시설을 보강하면 선형변경 없이 시속 400km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66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이 2015년에는 시험운행을 마치고 상용화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용산~광주구간 소요시간도 현재 예상시간 93분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정차역과 관련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4일 "현재까지 정차역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며, 광주역을 배제한 KTX 운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완공 후 KTX 운행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광주역에 KTX가 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무소각장 환경피해 범위 논란

포항공대 "반경 1.3㎞까지 영향 미쳐"
광주시 "용역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상무지구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공대 연구용역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해 광주시는 영향권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보완을 요청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포항공대 환경대기분야 장윤석 교수팀에게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를 의뢰해 최근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았다.

용역결과 상무소각장 주변 카드뮴과 니켈농도가 최고 0.056㎍/㎥, 0.0421㎍/㎥가 각각 검출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주지역 평균치를 10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경우 평균 0.03pg/㎥가 검출돼 환경기준치 0.6pg/㎥를 밑돌았으나 검출 범위는 상무지구 전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팀은 보고서에서 "소각장 반경 800m~1.3㎞ 지점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상무지구 아파트 전지역(1.3㎞)을 동일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현행법상 영향권 기준인 300m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두 포함돼 향후 주민지원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용역팀은 또 "다양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적 영향 반경을 평가할 때 기존 법적 반경인 300m 이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체적인 오염물질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이 모두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환경영향권을 1.3㎞로 정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품을 거부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중요한 배출원(소각장 굴뚝)에 대한 측정이나 비교 없이 상무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부당한 내용을 수정해 주도록 포항공대 연구팀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무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포항공대의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상무지구 전체를 소각장 주변영향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2001년 상무소각장이 가동된 지 10년 만에 처음 실시됐으며 용역비 1억9400만원은 광주시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포르투갈	G	브라질	〈25일 23:00〉
북 한	G	코트디부아르	〈25일 23:00〉
칠 레	H	스페인	〈26일 03:30〉
스위스	H	온두라스	〈26일 03:30〉

스코어 보드

슬로베니아	(1승1무1패)	0	C	1	(1승2무) 잉글랜드
미 국	(1승2무)	1	C	0	(1무2패) 알 제 리
독 일	(2승1패)	1	D	0	(1승1무1패) 가 나
호 주	(1승1무1패)	2	D	1	(1승2패) 세르비아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혜롭고 세상을 밝히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 구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 림

제55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작품발표회

6월 27일(日) 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제55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시상식 및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광주동아여자중·광주예술고
■종합우수상
광양제철초·대성여자중·전주예술고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삼성생명 posco